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교사, 교우 관계를 매개변인으로

이경호

광주교육대학교 통합교육지원센터 부소장

The Effects of Family Cohe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by the Mediator Variable with Teachers and Relationship with Peers

Kyung Ho Lee

Assistant director , Center for Assisting Inclusive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1, 2, 3학년 375명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이 중학생들의 정서, 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교사 및 교우로 확대되고 또한 중요해지는 발달단계임을 고려하여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력은 중학생들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모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관계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관계는 내재화문제에는 직접효과가 있으나, 외현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 가족응집력, 교사관계, 교우관계, 정서·행동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s which family cohesion has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sampling 375 of 1st, 2nd and 3rd grades middle school students. Also,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relationship with peers considering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adolescence expands to teachers and peers and is a important developmental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amily cohesion is shown to have direct effects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Also, relationship with teachers is shown to have direct effects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However, relationship with peers is shown to have direct effects on internal problems while it is shown to have insignificant results statistically on external problems.

Key Words : Family cohesion, Relationship with teachers, Relationship with peer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ternal problems, External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 Kyung Ho Lee(child629@naver.com)

Received November 26,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26,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혼란과 갈등이 증가하여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위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최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관심 군 학생 수가 2015년 대비 143% 증가한 87333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2017년 9009명으로 2015년 4177명에 비해 1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중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 상태로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고, 급격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정서적 불안, 반항, 비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서·행동문제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청소년기 이후 전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3]

청소년기의 다양한 정서·행동문제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족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조건이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곳으로, 자녀의 인성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관계 전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

대다수 비행청소년들은 가장 행복한 것에 대하여 "가정의 화목"을 꼽았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비행 및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5]

가족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족의 주요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태도나 양육방식보다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통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도와 안정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6]

이처럼 청소년기는 원만한 자녀-부모관계를 포함한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사회활동 및 적응이 증진되는 시기로 올바른 가족기능 수행은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서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7]

박재산 외[8]는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가족응집력이라고 정의하며, 가족응집력

이 높은 경우 청소년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정서적 문제를 적절하게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가족응집력은 청소년의 자존감 및 안정적인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대로 가족응집력의 상실은 정서·행동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해순, 옥지원[9]은 가족응집력이 청소년기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충동성의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충동성 조절을 위해 건강한 가족응집력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문제 해결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증진시켜 가족의 질적인 기능인 가족응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Conger, Bryant 그리고 Elder[10]는 청소년의 부모관계를 포함한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의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되며, 향후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비롯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아개념 및 독립심 등의 발달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또래 집단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교사가 아닌 친구에게서 심리적 지지를 얻으며,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도 충족된다.[11] 따라서 교우관계가 만족스러운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성숙한 사회적 기능 및 학교생활 적응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더불어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들이 부모, 또래와의 관계와 더불어 맺고 있는 중요한 관계는 교사관계이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생활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맺어진 제도적 관계임과 동시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인이라는 존재와의 인간적 관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3]

이처럼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교, 학교에서 가정으로 오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교사, 교우 등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관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등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이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추정하는 연구이다. 가족응집력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가지는 유대의 정도와 가족지지 정도를 나타내며,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친밀감,

공정, 칭찬, 편안함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교우관계는 학교 친구들과의 친밀감, 협력 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정서·행동문제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의 내재화문제와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 교사관계, 교우관계,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간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살펴 중학생들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가족응집력이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매개로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9일부터 17일까지 G광역시 5개 구(區) 소재 각각 1개교씩을 편의표집한 후 표집된 5개 중학교 1,2,3학년에서 각각 1개 학급씩을 임의표집하여 약 392명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자료로 부적절한 설문지(예: 이중 응답, 특정 반응으로의 편향된 응답, 누락된 응답 등이 있는 경우) 12부를 제외한 375부(96%)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 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에는 가족응집력 측정도구, 내재화/외현화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교사관계 측정도구, 교우관계 측정도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가족 응집력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의 정서적 상호관계인 가족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해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이하 FACESIII)를 사용하였다. FACESIII는 Olson 외[14]가 개발하고 이를 김용구[15]가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가족응집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방향성이 모호한 문항은 제외시켜 최종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최고 75점, 최저 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2.2.2 내재화/외현화 정서·행동문제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위축,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을 의미하는 내재화문제와 비행, 공격성을 의미하는 외현화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mbach[16]가 개발한 미국의 Youth Self Report(YSR)를 오경자 외[17]가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K-YSR의 하위척도 가운데 내재화문제 척도와 외현화문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 α)는 내재화문제 .86과 외현화문제 .88로 나타났다. 문항 51은 위축척도와 우울/불안척도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항으로 내재화문제 산출에 있어 중복되어 합산이 되므로 합산 시 한 번 빼주어서 산출하였다.

2.2.3 교사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친밀감, 공정, 칭찬, 편안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교사관계 측정도구는 Dubow와 Ullman[18]이 제작한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중 김영미와 심희옥[19]이 총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교사관계척도이다. 본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결과는 총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보며, 4, 5, 7번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다.

2.2.4 교우관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교우들과의 친밀감,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교우관계 측정도구는 김순복[20]이 제작한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교우관계척도를 신뢰도 검증결과 문항을 삭제시킬 경우 신뢰도가 높아 질수 있는 문항과, 요인분석 결과 방향성이 모호한 문항은 제외시켜 최종 총 25개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결과는 총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다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다.

2.3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측정변수로 가족응집력, 교사관계, 교우관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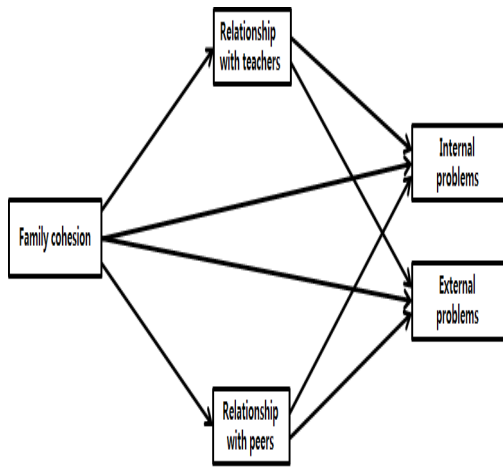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LISREL 8.80과 SPSS WIN 21.0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하였으며,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1 에서 제시한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데이터의 특성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인 경로분석모형 추정 방법은 ML(maximum likelihood)이다. 또한 ML추정 방법에 기본 가정은 다변량 정상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개별 변수의 정상성으로 기본가정 충족을 대체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Subject of study(n=375)						
Variables	Minimum value	Ceiling value	Mean	StD	Skewness	Kurtosis
F.C	22.0	75.0	54.3	10.49	-.406	.097
R.T	12.0	40.0	21.9	4.18	.607	2.233
R.P	31.0	93.0	61.9	13.21	.231	-.785
I.P	3.0	58.0	34.6	16.21	-.376	-.762
E.P	1.0	57.0	25.8	18.03	.432	-.671

Table 2는 5개의 측정변수간의 가족응집력(Family cohesion:FC), 교사관계(Relationship with teachers:RT), 교우관계(Relationship with peers:RP), 내재화문제(Internal problems: IP), 외현화문제(External problems: EP)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2.에 제시된 5개의 각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는 -.438~.744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 간에는 P<.0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응집력(FC)과 교우관계(RP) 간의 상관관계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현화문제(EP)와 교우관계(RP)간의 상관관계가 -.4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Variables	F.C	R.T	R.P	I.P	E.P
F.C	1.000				
R.T	.662**	1.000			
R.P	.744**	.516**	1.000		
I.P	-.730**	-.611**	-.642**	1.000	
E.P	-.572**	-.560**	-.438**	.533**	1.000

*R.05. **R.01.

3.2 가족응집력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그리고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인과관계 분석

Table 3은 경로분석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정량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χ^2 는 8.54(df=2)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χ^2 가 자유도(df)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표준 카이자승(NC= χ^2 /df)을 계산하여 그 값이 5미만이면 연구모형과 자료가 잘 합치한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21] 이러한 적합도의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정성적 적합도 지수인 GFI, TLI, RMR은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족응집력이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매개하여 정서·행동문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

Goodness	x2(p)	df	NC	GFI	TLI	RMR
	8.54p=.014	2	4.27	.99	.98	.02

다음으로 아래 Fig. 2는 경로모형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며, 유의하지 않는 경로는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Table 4.는 경로모형의 직접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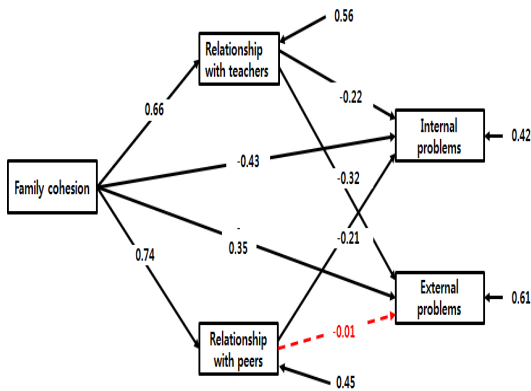


Fig. 2. Hypothetical model

Table 4에 나타난 변수 간 직접효과 결과는 우선 가족응집력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관계(RT)도 내재화문제(IP), 외현화문제(EP)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관계(RP)는 내재화문제(IP)에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현화문제(EP)에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 of Direct effect

	Path	B	Beta	SE	t-value
F.C	→ R.T	.26	.66	.02	17.06***
	→ R.P	.94	.74	.04	21.53***
	→ I.P	-.66	-.43	.09	-7.35***
	→ E.P	-.60	-.35	.12	-4.97***
R.T	→ I.P	-.85	-.22	.17	-4.91***
	→ E.P	-1.39	-.32	.23	-5.95***
R.P	→ I.P	-.26	-.21	.06	-4.20***
	→ E.P	-.02	-.01	.08	-.19

*p<.05, **p<.01, ***p<.001

Table 5에서는 가족응집력(FC)이 내재화문제(IP), 외현화문제(EP)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교사관계(RT)와 교우관계(RP)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Table 5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가족응집력(FC)은 교사관계(RT), 교우관계(RP)를 매개하여 내재화문제(IP) 및 외현화문제(E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족응집력(FC)이 교우관계(RP)를 매개하면 내재화문제(I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외현화문제(EP)에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5. Result of Mediator effect

Path	B	Beta	SE	t-value
F.C → R.T → I.P	-4.67	-.15	.05	-4.72***
F.C → R.T → E.P	-5.48	-.21	.07	-5.62***
F.C → R.P → I.P	-4.26	-.15	.06	-4.12***
F.C → R.P → E.P	-.25	-.01	.08	.19

*p<.05, **p<.01, ***p<.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은 중학생의 정서·행동문제(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모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력이 약화되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문제와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높다는 Alison, Shirley와 Mavis[22]의 연구결과와 가족응집력이 사회적 적응능력 및 비행, 폭력 등의 외현화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성이 높다는 김재엽 외[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응집력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와 신뢰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이 낮은 중학생들은 낮은 신뢰감으로 안전 지대가 없다고 느껴 상호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져 우울 불안의 내재화문제와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문제와 같은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성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동일성을 가지는 가족애착과 응집력의 향상 그리고 가족 간 정서적 지지가 직·간접적으로 유지될 때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은 교사관계, 교우관계에 모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력이 높은 가정은 가족구성원 끼리 정서적 교류가 원만하여 심리적으로 안정 되어있어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도 부적응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임성우와 가영희[24]의 연구 결과와 낮은 가족응집력은 학교적응

중 교사에 대한 적응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이 부모와의 문화차를 느낄수록 대상이 또래인 교우적응보다는 어른인 교사에 대한 적응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서경웅[25]의 연구결과와 가족응집력이 교우관계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지선과 진현정[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적응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가족관계는 중요한 발달적 맥락이고 나아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낮은 가족응집력은 가족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형성의 실패 경험이 되고 이로 인해 타인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로 정서·행동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도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지적 관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사관계도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우관계는 내재화문제에는 직접효과가 있으나, 외현화문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 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예방에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Mayer와 Salovey[27]의 연구와 교사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외현화문제의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한다는 여종일과 이경화[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우울/불안 등 내재화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김윤희 외[29]의 보고와 일치한다. 하지만 교우지지가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박명화[30]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지만 교우관계의 질이 내재화문제행동이 외현화문제행동 보다 상관성이 더욱 높다는 한현아와 도현심[31]의 연구와는 일치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현장의 교육과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 중학생들 스스로 외현화된 문제에 대한 자기통제력이 강화되어 외현화문제에 비해 내재화문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 관계는 부모갈등의 노출과 부정적 가족유대감 문제로 인한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기 가족 내 부정적 관계로 인해 내·외적 부적응 문제발생을 줄이고 적응적인 생활을 위해 교우와 교사관계가 매

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 환경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는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교사와 교우라는 점에서 교사와 교우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시기에 놓여 있는 중학생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변인으로서의 긍정적인 교사,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환경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족응집력이 교사, 교우관계를 매개로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우선 본 연구는 학년 및 성별이 다른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검증하지 못하고 요인 간의 관계만을 분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이 다른 집단 간의 비교 차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자기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복합적 측정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A. Y. Kim. (2008). The Development of Academic Motiv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5), 111-134.
- [2] Y. J. Lee & M. S. Choe. (2018). Profiles of emotional and behavior problems as predictors of problematic internet use in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2), 497-521.
- [3] S. S. Kim. (2013). The Influence of Family Relationship Perceived by Adolescents upon Depression / Anxiety, Withdrawn Behavior, and Aggression :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and Friend Suppor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2), 343-364.
- [4] H. S. Jeon & G. O. Lee. (2002). The Effects of Early

- Attachment History with Mother on Adolescent Attachment Formation and Stress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2), 191-210.
- [5] J. H. Kim & G. Y. R. Ahn. (2013).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or School Adjustment: Self-Regul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4), 823-836.
- [6] K. W. Park & K. S. Kim. (2015). Family Cohe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Level of Middle School Students - Mediating Effects of Impulsivity.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8(6), 113-136.
- [7] D. J. Laible., G.. Carlo & M.. Raffaelli.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45-59. DOI: 10.1023/A:1005169004882.
- [8] J. S. Park, M. S. Lee & J. W. Moon. (2011). Effect of Functional Deficiency in Family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nclin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24(2), 199-209.
- [9] H. S. Lee. & J. W. Ok. (2012).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Depression on Impulsive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374-382.
- [10] M. Cui., R. D. Conger., C. M. Bryant. & G. H. Elder, (2002). Parental Behaviors and the Quality of Adolescent Friendships: A Social- Contextu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76-689.
- [11] H. G. Huh & H. S. Kim. (2011). An analysis of adolesc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n the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forum*, 10(3), 1-20.
- [12] R. C. Savin-Williams & T. J. Berndt. (1990).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In S. Feldman and G.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13] Y. K. Sung. & J. S. Kim.. (2014). A Study of 'Poor but Engaged' Students in High School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chool Adaptation of Impoverished Youths . *Education*, 41(2), 33-58.
- [14] D. H., Olson., J. Portner & Y. Lavee. (1985). *FACES II 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15] Y. G. Kim.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on famaily Cohesivenes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
- [16] T. M. Achenbach.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17] K. J. Oh, E. Ha, H. R. Lee & K. H. Hong (2001). K-YSR (Youth Self-Report). Seoul: Huno.
- [18] E. F. Dubow & D. G. Ullman.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DOI: 10.1207/s15374424jccp1801_7.
- [19] Y. M. Kim & h. O. Shim (2000). Influences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 Relations with Teachers and Intramural / Extramural Activities on Peer Relationship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1(4), 159-175.
- [20] S. B. Kim. (2006).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to Peer Relationships, Empathic Ability, and Self-esteem of Isolated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3(2), 1-25.
- [21] G. J. Lee. (200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Kyoyookbook.
- [22] D. Alison,, M., Shirlely & H. Mavis. (1996). Family enviroment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nd antisocial behavior : a multivariate genetic analysis. *Develental Psychology*, 32(4), 590-603.
- [23] J. Y. Kim, H. J. Lee & M. G. Ka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family-cohesion and self-control ability on the adolescent's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6), 173-201.
- [24] S. W. Lim & Y. H. Ka.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hesion, Social Adaptation, and Anxiety perceived by Adolescents.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5(1), 29-39.
- [25] K. W. Seo.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Cultural Difference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Family Cohesiveness, and School Adaptation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26] J. S. Kim & H. J. Jin. (2017). Relationships between Cosmetics Use and Family Cohes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the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Girl.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8(4), 303-314.
- [27] J. Mayer & P. Salovey,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Y: Basic Books.
- [28] J. I. Yeo & K. H. Lee. (2004).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Reported by Parents and Teachers and Associat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3), 367-377.
- [29] Y. H. Kim., S. M. Kwon & S. G. Seo. (2008).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Problems and Depression/Anxiety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19(4), 57-79.
- [30] M. H. Park. (2013). The Effect and Development of Anger Management Program for Enhancement of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 Externalize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9(2), 45-67.
- [31] H. A. Han & H. S. Doh.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87-101.

이 경 호(Kyung- Ho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1년 8월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육학박사)
- 2015년 2월 : 광주교육대학교 통합교육지원센터(부소장)
- 관심분야 :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 E-Mail : child629@naver.com